

-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-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아산시 입장

2024. 2. 19.(월)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“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”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.

- 이기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“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”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기애 의원은 “아산시 복지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복지조직 개혁을 주문하시면서 현재 문화복지국을 문화부문과 복지부문으로 분리하여 복지국 신설하여야 하며, 현재 이원화된 복지업무(생계급여-사회복지과, 기초수급자 변동-여성가족과,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신청-공동주택과)의 일원화 통한 원스톱복지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개편 요청한다.”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

시 입장

-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(5년간) 총 428명의 공무원을 증원(1.3배)한 바 있으며, 복지 수요의 증가 등 보다 세밀하고 따뜻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도 같은 기간 동안 108명에서 174명으로 총 66명 증원(1.6배)하였습니다.
- 또한 읍면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보건·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1월 17개 읍면동 전부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, 본청 복지전담부서를 사회복지과-여성복지과-경로장애인과 3과 체제에서 2022.1. 사회복지과-여성복지과-아동보육과

-경로장애인과 4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, 복지 대상자가 좀 더 촘촘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다만,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복지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사무조정의 불합리성이 우려되는 점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,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 기준에 따라 국 설치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- 이번 「2024년 조직진단」 시 이기애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확인하여 복지 업무량 분석 및 부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실시하고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아산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※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총 무 과	과 장	장 치 원(041-540-2210)
		조 직 팀 장	심 미 홍(041-540-2427)